

112구 투혼 양현종, 만루홈런에 '와르르'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다시 또 고개를 숙였다.

KIA 양현종이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12차전에서 5.2이닝 6피안타(1피홈런) 4사사구 5탈삼진 7실점을 기록했다.

김혜성에게 만루포를 맞는 등 4회에만 5실점을 하는 등 올 시즌 '집중 난타' 양상이 반복됐다.

1회 시작은 좋았다. 1사에서 김혜성에게 좌측 2루타는 맞기는 했지만 3개의 탈삼진을 뺏아내면서 첫 이닝을 끝냈다. 첫 타자 김준완은 3구째 헛스윙 삼진, 3번 도슨도 3개의 공으로 연달아 방망이를 헛돌게 했다. 4번타자 김휘집과의 승부에서도 연달아 스트라이크 2개를 집어 넣은 뒤 헛스윙 삼진을 만들었다.

2회에는 실책으로 맞은 위기도 넘겼다.

송성문의 타구가 유격수 앞으로 향했지만 박찬호의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선두타자를 내보냈다. '천적' 이원석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면서 무사 1-2루. 양현종은 이주형, 전병우, 김동현을 모두 외야 플라이로 잡고 실점 없이 2회를 끝냈다.

3회에도 김준완을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했고, 김혜성의 타구는 직접 잡아 1루로 송구하면서 투아웃을 채웠다. 도슨과의 승부에서는 9구 승부 끝에 볼넷을 내주기는 했지만, 김휘집에게 유격수 땅볼을 유도하면서 이닝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4회 양현종이 못매를 맞았다.

1사에서 이원석에게 우전안타를 내준 양현종이 이주형의 땅볼로 선행주자를 잡고 투아웃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병우의 타구가 유격수 깊은 곳으로 향했고, 유격수 맞고 공이 흐르면서 좌전 2루타가 기록됐다.

'고졸 루키' 김동현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면서 2사 만루가 됐다. 그리고 김준완과 8구까지 가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다시 볼넷을 내주면서 밀어내기로 실점을 기록했다.

이어진 만루 상황, 김혜성이 타석에 섰다. 초구 파울 뒤 2구째 던진 140km 직구가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점수는 0-5까지 벌어졌다.

양현종은 딱 1주일 전 같은 마운드에서 악몽 같은 순간을 경험했다.

LG 트윈스를 상대로 시즌 19번째 등판에 나선 지난 8일, 양현종은 길고 긴 1회를 보냈다.

키움전 선발 등판 5.2이닝 7실점

3회까지 호투하다 4회 난타 당해

올 시즌 최다투구하고도 고개 숙여

선두타자 홍창기의 안타를 시작으로 문성주, 김현수, 오스틴에게 연속 4안타를 내줬다. 오지환의 땅볼로 원아웃은 만들었지만 문보경에게 적시타를 내준 뒤 박동원에게 희생플라이를 허용했다. 박해민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양현종은 1회에만 5실점을 하면서 진땀을 흘렸다.

2회는 볼넷으로 시작했고, 1루수 최원준의 포구 실책까지 나오면서 다시 3점을 내줬고, 2회 8실점(6자책점)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 주의 시작이었던 만큼 팀 입장에서는 볼넷 고민까지 해야 했던 상황에서 반가운 비가 내렸다. 2회말 KIA 공격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결국 우천 노계임이 선언됐고, 양현종의 이날 기록은 비로 지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늘의 도움은 없었다.

양현종은 김혜성에게 한방을 허용한 뒤 도슨을 1루 땅볼로 잡고 4회를 끝냈고, 5회에는 이원석을 유격수 땅볼로 잡는 등 삼자범퇴로 처리했다.

양현종은 6회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이주형과 전병우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6회까지 책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김동현을 다시 한번 볼넷으로 내보냈고, 김준완에게 우전 안타를 맞으면서 2사 1-3루에서 양현종의 등판이 마무리 됐다. 투구수는 112구에 이르렀다.

올 시즌 개인 최다 투구수다. 앞선 올 시즌 최다 투구수는 지난 5월 21일 키움과의 홈경기에서 기록된 111구다. 최원태와 맞대결을 벌였던 이 경기에서 양현종은 7이닝 1실점의 호투에도 패전 투수가 됐다.

양현종에 이어 김기훈이 두 번째 투수로 나왔고, 김혜성과 도슨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양현종의 자책점은 7점까지 뛰어올랐다. 이와 함께 양현종의 올 시즌 평균자책점은 4.01에서 4.39로 치솟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양현종이 4회초 2사 만루에서 키움 김혜성에게 만루홈런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 여왕' 박인비 IOC 선수위원 후보 선정

대한체육회, 한국 후보로 확정
파리올림픽 기간 중 선수 투표

'골프 여왕' 박인비(35)가 내년 진행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선출 절차에 한국을 대표해 나설 후보로 사실상 결정됐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제2차 원로회의를 열어 내년 파리올림픽 기간 진행될 새 IOC 선수위원 선출 투표에 출마할 국내 후보자로 박인비를 추천했다고 15일 밝혔다.

체육회는 "박인비가 평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16~17일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박인비는 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로 확정된다.

'스포츠 분야의 유엔'으로 불리는 IOC를 구성하는 IOC 위원 중 선수위원은 직전 올림픽에 출전했거나 선거가 열리는 올림픽에 현역 선수로 참가하는 선수만 출마할 수 있는 자리다. 다른 IOC 위원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도 지며, 선수와 IOC의 가교 구실을 하고 스포츠 외교에 기여할 수 있다.

내년 파리 올림픽 기간 참가 선수 투표로 새로운 선수위원 4명이 선출될 예정인데, 한국 후보 한 자리를 놓고 5명이 지난 10일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의 비공개 면접으로 경쟁한 바 있다.

박인비와 진중오(사격), 김연경(배구), 이대훈(태권도), 김소영(배드민턴)이 나선 가운데 박인비는 압도적인 1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양궁 국가대표 오진혁도 도전 의사를 밝혔으나 항



골프 여제 '박인비(35)가 내년 진행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선출 절차에 한국을 대표해 나설 후보로 사실상 결정됐다. /연합뉴스

저우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전지훈련에 참가하느라 면접에 참석하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면접에 나선 후보들은 올림픽 성적을 비롯한 선수 경력과 외국어 구사를 포함한 국제 활동 능력 등을 평가받았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1승을

거두고 역대 누적 상금 4위(1826만 달러)에 이를 올린 박인비는 4대 메이저대회를 제패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명예의 전당에도 가입한 현역 최고 스타 중 한 명이다.

여기에 그는 여자 골프가 116년 만에 올림픽 종목으로 부활한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때 금메달까지 목에 걸어 최초의 '골든슬램'도 이뤘다.

어린 시절부터 외국 생활을 해 영어 실력은 특히 후보 중 최고 수준이라 이 역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수위원이 되려면 IOC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중 하나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한다.

박인비는 이번 면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IOC 선수위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면접 당일 그는 취재진에게 "리우 올림픽과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건 선수위원을 향한 꿈 때문이었다. 올림픽 정신으로 리우 올림픽 금메달을 땀고, 이제 그 정신을 세계에 알리며 '올림픽 무브먼트'(올림픽 운동)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 "골프는 대중적 인기 스포츠다. '최근 어떤 종목이 직접 경기한 적 없느냐'고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인기 종목이 주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도쿄 올림픽 때도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인 파우 가솔이 선수위원 투표 1위에 올랐다"며 강조로 내세웠다.

"조용히,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해 왔다"고 강조한 그는 "유승민 현 선수위원이 선거 때 450km를 걷고 체중이 6kg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500km를 걸어서 10kg 감량하는 걸 목표로 해보겠다"고 각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선발투수 류현진이 13일(현지시각)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와 홈 경기에서 코리안 빅리거 최고령 선발승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류현진 444일 만에 승리투수 됐다

ML 시카고 컵스전 5이닝 2실점
토론토, 11-4 승리 3연패 탈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승리 시계가 444일 만에 다시 울렸다.

류현진은 지난 14일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안타 2개와 볼넷 2개만 내주고 2실점(비자책) 했다. 주 무기 체인지업을 활용해 삼진은 3개를 잡았다.

토론토는 류현진의 역투 덕에 11-4로 승리하며 3연패에서 벗어났다.

류현진이 바리그에서 승리를 쟁긴 건, 지난해 5월 27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5이닝 6피안타 2실점) 이후 444일 만이다.

444일 만에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승리가 75승에서 76승(46패 1세이브)으로 한 개 더 늘었다. 올 시즌에는 3경기 만에 첫 승리(1패)를 거뒀다.

2022년 6월 19일 왼쪽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길고 지루한 재활을 견디고 올해 8월 2일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복귀전을 치렀다.

볼티모어전에서는 5이닝 9피안타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고, 8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상대로는 4회까지 노히트 피칭을 했지만, 4회말 2사 1

루에서 오스카 곤살레스가 친 시속 157km의 강한 타구에 오른쪽 무릎 안쪽을 맞아 5회에는 마운드에 서지 못했다.

다행히 무릎에는 큰 이상이 없었고, 류현진은 예정대로 14일 컵스전에 등판했다.

이날 류현진은 1회 1사 1루에서 나온 토론토 1루수 브랜던 벨트의 포구 실책으로 위기에 몰렸고, 2사 1-2루에서 댄스비 스완슨에게 3루수 옆을 뚫은 2타점 2루타를 얻어맞았다.

하지만 류현진은 이후 실점 없이 5회까지 던지며 승리 투수 요건을 채웠다.

이 경기 전까지 후반기 28경기에서 183점(특점 1위)을 올린 컵스 강타선을 상대로 얻은 성과여서 기쁨은 더 컸다.

이날 류현진은 86개로 5이닝을 채웠다. 직구(40개) 구속은 최고 시속 147km(91.1마일), 평균 시속 142km(88.4마일)로 앞선 두 차례 등판과 비슷했지만, 구석을 찌르는 제구가 돋보였다.

주 무기 체인지업(24개)은 날카롭게 떨어졌다. 류현진이 잡은 삼진 3개의 결정구는 모두 체인지업이었다. 류현진은 커터(12개)와 커브(10개)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류현진은 스즈키와 벌인 '작은 한일전'에서도 2타수 무안타로 완승했다. '전 다저스 동료' 밸리저와의 대결은 1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마쳤다. /연합뉴스

신지애, LPGA 투어 AIG 여자오픈 3위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베테랑 신지애(35)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또 한 번 상위권 성적을 내며 '클래스'를 입증했다.

신지애는 13일(현지시각) 영국 잉글랜드 서리의 월턴 히스골프클럽(파72·6713야드)에서 열린 AIG 여자오픈(총상금 9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하나를 묶어 2언더파 70타

를 쳤다.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신지애는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자 릴리아 부(미국·14언더파 274타)와는 7타 차다.

신지애는 지난달 US여자오픈 준우승에 이어 이번 시즌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두 번째 '톱 3' 성적을 냈다.

LPGA 투어 11승을 비롯해 각국 프로 대회에서

통산 64승을 올린 신지애는 2014시즌부터는 일본 투어에 전념하고 있다.

LPGA 투어는 일본,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 정도만 가끔 나서다가 4년 만의 '미국 나들이'였던 US여자오픈에서 선전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선수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저력을 뽐냈다. AIG 여자오픈이 '브리티시 여자오픈'으로 불리던 2008년과 2012년 정상에 올랐던 신지애는 이 대회인 7년 만에 출전해 또 한 번 좋은 기억을 남겼다.

3라운드까지 선두와 한 타 차 공동 3위를 달려 역전 우승 기대감을 키웠던 김효주는 마지막 날 2타를 잃고 공동 4위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